

#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경관

## -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 -

손은신\*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I. 서론

공장을 비롯한 과거의 산업 시설들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파크로 개조되고 있다. 비단 공장이 아니더라도 폐정수장은 공원으로, 폐탄광은 박물관으로, 폐교는 체험학습장으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그 기능이 탈바꿈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한 흐름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현 시대가 가진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갈망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의지'가 담긴 가장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매체로서의 '장소'는 어떻게 체험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는 첫 번째 문제의식을 근대 이후의 시대가 겪은 '역사의 가속(加速)'을 통해 설명했다(Nora, 1989: 31-67). 노라에 따르면,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휩쓸린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망각하며 많은 살아있는 기억들은 기록되어 역사화된다. 이 때 '기억의 장소'들은 역사가 기억을 파괴하려는 힘에 대응하여 기억하려는 의지를 담은 공간으로 생성된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노라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경험 기억'의 상실을 막기 위해 이를 매체에 기초한 '문화 기억'으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매체란 문화적 기억이 뿌리 내린 물질적 기반으로, '장소'는 외부적 기억 매체의 하나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Assmann, 2009: 9-27).

'장소'는 기억의 매체 중 가장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기억의 장소'에서도 기억이라는 장소의 특징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맞부딪치는 체험 공간은 시간적 특성으로는 현재적이다. 그러나 기억에 기초한 장소와 경관은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과거의 기억이라는 시간적 요소가 더해져 재구성된다. 따라서 '기억의 장소'에서의 미적 경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장소의 물성에 관한 논의에서 주로 언급되는 기존의 미학적 개념들—미(beauty), 숭고(sublime), 픽취레스크(picturesque) 등—의 연장선상에서 기억의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미적 경험을 온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또 다른 미학적 개념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라는 미학적 개념을 통해 기억의 장소에서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경관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의 의미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는 초기에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두 미학적 개념의 병적일 만큼 강한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 집중하기로 한다.

먼저 노스텔지어(nostalgia)는 "귀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nostos)'와 고통 혹은 열망을 의미하는 '알지아(algia)'를 결합한 신조어로서, '집으로 돌아가고픈 고통스런 열망 혹은 질병'을 가리킨다"(김홍중, 2007: 158-159). 즉, '고향'으로 지칭되는 공간의 상실로 인한 그리움의 정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효석, 백석, 유치환 등 20세기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문인들의 작품에서 노스텔지어의 개념이 논의되어 왔다(이기성, 2003; 강유정, 2011). 사회적 현상으로는 러시아, 독일, 중국 상하이 등 탈사회주의 국가 및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주의 노스텔지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이문영, 2008; 박자영, 2004; 한지은, 2008; 김승욱, 2009). 문화적·공간적으로는 김홍중이 한국 골목길은 노스텔지어의 장소이며, 이 감성은 이미 상실되어 사라지고 없는 골목길의 현 상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김홍중, 2007). 박지향은 영국의 사례에서 '전원적 잉글랜드'라는 말 속에 전원적인 농촌 경관이 더 이상 영국에 존재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사라진 전원적 경관에 대한 깊은 향수가 '전원적 잉글랜드'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더욱 강하게 작용함을 지적하였다(박지향, 2006).

한편, 멜랑콜리(melancholy)는 "그리스어로 '검다'를 의미하는 '멜라스(melas)'와 담즙을 의미하는 '콜레(chole)'의 합성어로 '검은 담즙'이라는 뜻"(Kristeva, 2004)이다. 히포크라테스는 검은 담즙이 과도하게 흘러넘쳐 뇌에 영향을 줄 때, 슬픔, 불안감, 낙담, 자살 성향 등의 병적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였다(Kristeva, 2004). 20세기에 이르러 프로이트는 현대 멜랑콜리 이론의 기초가 되는 멜랑콜리론을 전개하였는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멜랑콜리의 기준은 '상실과 마주 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애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슬픔은 평범한 슬픔으로 남지만, 실패할 경우 슬픔은 멜랑콜리로 변모한다(김동규, 2010:

259-287). 한편,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를 사례로 끝없이 반복되고 회복되지 않는 상실의 비통감을 멜랑콜리로 설명하였다(Bowring, 2011: 223). 조경에서는 제키 보링이 『A Field Guide to Melancholy』에서 멜랑콜리 미학을 전 세계의 여러 공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논문에서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을 기반으로 영화 'London'과 로버트 스미슨의 에세이 'The Monuments of Passaic'에 드러나는 멜랑콜리적 경관을 분석하였다(Bowring, 2008: 2011). 조경진은 픽워레스크 가든의 폐허에서 멜랑콜리적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의 조경 공간에 이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조경진, 2006).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공간과 기억의 '상실'에서 발생한다. 노스텔지어가 고향의 상실을 그리워하는 전원적 향수라면, 멜랑콜리는 상실이 가져온 회복될 수 없는 슬픔이다. 특정한 '기억의 장소'는 곧 그 기억이 현재는 부재(不在)함을 의미하므로 시간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상실'이 생겨나게 된다. 상실이 만들어내는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를 통한 미적 경험은 병적으로 여겨질 만큼 강력하여 장소성을 기억하려는 의지와 강하게 상호작용한다.

### III. 사례: 종로 피맛골과 승례문

이 장에서는 기억을 통한 경관의 재구성과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를 통한 미적 경험의 사례로 서울의 종로 피맛골과 승례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로 피맛골은 조선시대부터 약 600년간 도심의 지켜온 오랜 도시의 켜가 축적된 서민들의 골목이다. 2009년에 서울시의 피맛골 정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전종환은 피맛골 상인과 피맛골을 찾는 서민들의 오랜 기억이 살아있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피맛골'을 재개발 이후 역사적 유물로 '화석화되는 피맛골'과 비교하였다(전종환, 2009: 792-793).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재개발로 기존의 피맛골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피맛골을 그리워하며 추억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KBS, 2009). 1970년대 사진작가 김기찬의 골목길 풍경 사진 속 삶의 현장이던 달동네 골목길과 피맛골은 그 모습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신만의 장소기억을 가지고 피맛골의 장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골목길을 자신의 기억에 투영하여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킴으로써 재구성된 노스텔지어의 풍경으로 기억할 것이다.

승례문은 조금 다른 관점의 장소 기억을 가진다. 승례문은 2008년 화재로 전소되어 올해 5월에 복구가 마무리되었는데, 국보 1호로서 특별한 문화재인 승례문의 화재 사건은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재의 승례문은 최고의 복원기술자들을 통해 복원되었으나, 승례문에 대한 장소 기억 안에는 2008년 겨울 불에 타 부서지는 승례문의 모습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복원일 수 있으나, 이전 승례문이 가지던 역사성과 시간의 켜는 다시 복원할 수 없다. 현재의 승례문은 외양과 관계없이 회복 불가능한 시간의 짐이라는 장소 기억을 안게 되었다. 승례문의 멜랑콜리는 화재 전소의 안타까움이 멜랑콜리라는 미적 매력을 선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통합되지 않는 승례문의 상처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이 하나의 풍경으로 인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맺음말

오늘날 장소에 관한 미적 경험에서 장소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은 근대 이후 가속화된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특한 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라는 미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억의 장소가 가진 '기억하려는 의지'는 공간의 물성에서 드러나는 미감 위에 상실된 공간 또는 시간의 비가역성으로 환기되는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 등의 미감이 더해져 상호작용하며, 장소 기억을 강화한다. 장소에 대한 미학적 논의의 확장으로 시간성이 결합된 장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앞으로 조경학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조경 설계에서도 장소의 기억이라는 특수성과 여러 미적 감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유정(2011) 이효석 소설의 노스텔지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 111-131.
2. 김동규(2011)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철학탐구 28: 259-287.
3. 김승욱(2009) 근대 상하이 도시 공간과 기억의 굴절. 중국근현대사연구 41: 115-140.
4. 김홍중(2007)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77: 139-284.
5. 박자영(2004) 상하이 노스텔지어: 중국 대도시 문화현상 사례와 관련 담론 분석. 중국현대문화 30: 91-122.
6. 박지향(2006)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서울: 기파랑.
7. 이기성(2003) 고독이라는 병과 근대의 노스텔지어: 백석론. 민족문화사연구 22: 277-302.
8. 이문영(2008)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비교 연구. 슬라브학보 26(2): 151-179.
9. 전종환(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6): 779-796.
10. 조경진(2006), 폐허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pp.190-199.
11. 한지은(2008) 근대역사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Assmann, A.(2009) Erinnerungsraume.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1)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13. Bowring, J.(2008) A Field Guide to Melancholy. OldcastleBooks.
14. Bowring, J.(2011) Melancholy landscape of modernity. Landscape Journal 30(2): 214-225.
15. KBS(2009) 종로 피맛골 72시간. 다큐멘터리 3일. 2009.03.21.
16. Kristeva, J.(1987) Soleil noir. 김인환 옮김(2004).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서울: 동문선.
17. Nora, P., et al.(1984) Les Lieux de memoire. 김인중 옮김(2010) 기억의 장소. 파주: 나남.